

25세 KAIST 박사 유럽 나노研 입사

이슬기씨 IMEC-NL서 연구

윤대원기자 yun1972@etnews.com

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최연소 박사학위 졸업생이 유럽 나노전자 연구소에 입사해 화제다.

주인공은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슬기(25) 박사. 이 박사는 오는 3월부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바이오-메디컬 분야 전자 연구소인 IMEC-NL에서 근무한다.

이 박사는 서울과학고를 2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지난 2004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. 이후 3



년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 5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.

이 기간에 이 박사는 세계 최고의 학술대회

국제고체회로소자회의를 포함해 미국, 일본, 유럽, 대만 등에서 주최했던 학회에서 총 11개 논문을 발표했다. 10개 특허도 출원했다. 지난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'착용형 수면다원검사 시스템'을 개발하기도 했다.